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15호 2025년 1월 12일(다해) 주님 세례 축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 영남대회'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홍보·전산
오픈카톡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청송 본당 주임
최형규 미카엘 신부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교회는 연중 제 1주일을 ‘주님 세례 축일’로 정하여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건너가시는 주님의 새 이정표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세례를 상기함으로써 신앙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커다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일생을 노력하며 살아 갑니다. 때로는 재물로, 때로는 명예나 권력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빈 주머니가 가득 채워지는 듯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이내 텅 비어버리고 마는 마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삶은 또다시 고달파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란 빈 주머니를 채우려는 노력의 연속인 듯합니다.

가만히 마음을 열고 나의 주머니 속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혹시 새는 구멍은 없는가? 이 속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이 복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겸손되어 자신을 낮추고 베풀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빈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며,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란 바로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겸손 되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녀가 되는 은총입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을 맞아 참으로 풍요로웠던 우리의 처음 시작을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세상과 이웃들에게 빛과 희망을 심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텅 빈 주머니가 하느님 사랑이라는 열매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 영남대회’

표지 사진 설명

1978.11.21. 함창 본당, 영남지역 665명 참석

1부 추수 감사제 : 안동 교구장 두봉 주교 주례 및 강론

2부 쌀 생산자 대회 : 쌀 생산비 조사 보고 및 78년 쌀값 보상 운동 중간보고 (전국 이사 박재일)

3부 농민 축제 : 농악, 단막극, 노래, 위령제 등

4부 규탄대회 : 울주농민회 탄압, 울산 공해 문제, 벌교 토지개혁, 광산 하천부지 등

농민회원들이 행사를 조직적으로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협동 능력, 인간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함창본당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구체적이고 정정당당한 주장을 선언한 축제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사목적 의미가 크며, 교구 안에서 이러한 의식과 조직력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였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 (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1. 위기에 놓인 인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2. 2025년에 가톨릭 교회는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사인 희년을 거행합니다. ‘희년’(Jubilee)은, 마흔아홉 해마다 숫양 뿔 나팔(히브리어로 yobel)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백성을 위한 자비와 해방의 해를 선포하던 고대 유다 관습을 떠올리게 합니다(레위 25,10 참조). 이 장엄한 선포는 온 땅에 울려 퍼져(레위 25,9 참조) 땅의 사용, 재화의 소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자기 소유물을 빼앗긴 이들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억압의 숙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요 형제자매인 우리는 모두 주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레위 25,17.25.43.46.55 참조).

3. 이 은총의 해를 시작하며, 숫양의 뿔 나팔 대신, 우리는 의인 아벨이 외치는 피의 울부짖음처럼(창세 4,10 참조) 이 세상 수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4. 우리는 저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현재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태들을 비롯하여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겪어온 파괴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특히 모든 종류의 불평등,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환경 파괴, 허위 정보로 의도적으로 조성된 혼란, 모든 유형의 대화 거부, 군수 산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인류 전체의 존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고통받는 인류의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불의의 사슬을 끊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어찌다가 하는 자선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울뜨레야 월레미사

12월 16일(월)에 송현동 본당(주임 신부- 우병현 마태오)에서 <울뜨레야 월레미사>가 있었습니다. 권혁주 요한 크리스스토모 주교님께서 집전을 해 주시고 그 외에 네 분의 신부님(황영화, 정성호, 김유강)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12월 29일(주일)에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구 내 청년 50여명이 모여 ‘지구탐험대’라는 주제 아래 상주지구를 탐방하였습니다. 2025년 교구 사목방향인 ‘청년·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에 따라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살아 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세요.



세례자 요한 2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7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마을 아인 케렘에서 태어납니다. 요한의 생일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니, 대략 기원전 6-4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부모는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인데, 둘 다 사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이 가문의 전통을 따라 사제직을 이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그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미 하늘에서 부여받은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요한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던 전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사제가 아니라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루카 1,76).

주님 성탄 밤미사

12월 24일(화)에 청송 본당(주임 신부- 최형규 미카엘)에서 <주님 성탄 밤미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성탄 낮미사

12월 25일(수)에 주교좌 목성동 본당(주임 신부- 황재모 안셀모)에서 <주님 성탄 낮미사>가 있었습니다.



희년 개막미사

12월 29일(주일)에 주교좌 목성동 본당에서 <희년 개막미사>가 있었습니다.



신년인사회

1월 2일(목)에 주교좌 목성동 본당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농이버섯 한우두부전문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당동)
T.054-633-6762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민물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속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노인주간보호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T.054-535-8090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교구장 동정



1월 19일 청소년 견진 캠프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월 17일 전달수 안토니오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월 14일 김우진 서동호 베드로
최한별 사도 요한 신부

교 구

2025년 청소년 견진캠프

일 시: 1. 17(금) 15:00~ 19(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준비물: 성경(가톨릭 신구약 합본 성경),
묵주, 사전학습지, 봉헌금, 따뜻한
겨울옷, 운동화, 세면도구, 필기도구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일 자: 1. 21(화)~ 22(수)
장 소: 개운동 본당 및 상주 가르멜 수녀원

사목임원·교구 제 단체장 연수

일 시: 1. 24(금) 17:30~ 25(토) 점심식사까지
장 소: 농은수련원
참가비: 1인 40,000원
대 상: 평협 상임임원, 본당 사목임원,
교구 내 제 단체 임원
신청 마감: 1. 13(월)까지 (054-858-3114)

2025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대 상: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등록 기간: 2. 12(수)까지
등록금: 1인 50,000원(1년)
문 의: 사목국 성소담당(054-858-3115)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2. 15(토) 14:00~ 2. 16(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2024학년 기준으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기 타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연수

일 자: 2. 10(화)
장 소: 대구대교구청 별관
신청 및 문의: 010-3829-7667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제 단 체

남성 제47차 꾸르실로

기 간: 1. 12(주일) 16: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참가 인원: 20개 본당에서 30명 참가

2025년 여성연합회 연수 및 총회

일 시: 1. 18(토) 10:30
장 소: 교구청
대 상: 여성단체 임원 및 여성 신자
참가비: 10,000원
(농협- 356 1218 6270 13, 박효진)
준비물: 미사준비, 텀블러, 필기구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특강'

일 시: 2. 8(토) 10:00~ 12:00
장 소: 교구청
대 상: 60명(각 본당 생태환경 부장, 차장)
강 사: 김대건 베드로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주 제: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생태적 삶'
신청기간: 1. 12(주일)~ 1. 26(주일)
문 의: 김경태 다투 010-6510-1552

수 도 회 · 피 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1. 18(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 (zoom) 프란치스코회

일 시: 3~ 11월(매 주 주일) 16:00~ 18:00
(120,000원 x 3회)
지 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 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웅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회센터 불학기 동영상 강좌/ 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철학상담·아픈영혼을'철학'으로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19:00~ 21:00,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반, 목요일반, 금요일반: 19:30~ 22:00, 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신 청: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 14(화)까지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치매 심리정서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치매의 이해, 증상, 평가 및 예방,
치매환자 케어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사이버성경학교 '순례자 희년' 수강자 모집

대 상: 하느님의 뜻을 찾는 모든 이
신 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365일 신청
문 의: 031-360-7635/ 010-7470-7966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경당

설날 연미사 안내

일 시: 1. 29(수) 11:00/ 15:00
장 소: 봉안경당
신 청: 당일 사무실 혹은 계좌입금
(농협 737-02-167722.
예금주 김도겸)
* 계좌입금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문 의: 054-655-1781